경북 봉화군 '봉화은어축제'

사고의 작은 변화 속에서 더 좋은 축제는 태어난다

바야흐로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전국적으로 수백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 다만, 갈 수 있는 축제는 많더라도 가볼 만한 축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 선택을 해야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안고 있는 위험이다. 일단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어느 축제장이라도 찾았다고 하면 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가볼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심과 추억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다!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에 위치한 봉화는 낙동강과 한강의 최상류에 있어 여기에서 발원한 1급수의 시원한 계곡물은 은어가 생육하기에 적합하다. 축제를 개최하기에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갖추고 있지 않던 댐과 보가 없던 시절, 봉화는 은어들이 낙동강 1,300리를 거슬러 올라와 9~10월에 산란하고 부화한 후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3~4월이 되면 다시 하천으로 올라와 일생을 보내던 고장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라는 그늘 아래,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축제나 문화가 발전해 왔고, 1999년 봉화도 이런 흐름에 따라 "은어가 찾아오던 고장"이라는 아득한 시절의 추억을 모티브로 지역을 잘 알리고 지역주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었다. 바로 1급수의 맑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은어와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인 봉화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의 은어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비어있는 잔 그리고 비바람이 삼켜버린 시작!

1960년대 중·후반부터 날로 성장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 종합적인 수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하류 지역의 연례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농업·공업·생활용수를 확보하며 수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목적으로 계획된 안동댐이 1970년대 초 낙동강 수계에 등장하면서 민물고기의 일종이자 회귀성 어종인 은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은어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금까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고, 오지라고 불릴 정도로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봉화군의 이미지와 과거 은어가 살던 곳이라는 추억을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육성·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은어축제'가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는 실리(實利)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값진 선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제1회 봉화은어축제는 봄이면 은어가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와 하천을 은빛으로 수놓았던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갈래천과 봉화읍 석천계곡 두 곳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막이 올랐으나 행사 개최 3일 만에 집중호우로 취소되는 아픔을 맞게 되었다. 그 후에도 13회까지 개최되는 동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취소와 중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의 추억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봉화은어축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여전히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사를 준비해야 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대신 축제 개최로 인해 주변상권의 반사적 이익과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공존하는 어려움을 안고 '봉화은어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화합의 장!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해마다 휴가철이 찾아오면 누구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의 여유와 작은 일탈을 생각한다. 그러나 휴가철에 개최되는 물과 관련된 다수의 축제 가운데 봉화은어축제만큼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진 역동적인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체험이라는 킬러콘텐츠는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다시 일깨워주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부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는 해를 거듭하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 발전하여 '봉화은어축제'를 전국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대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은어축제

또한 '봉화은어축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축제이자 지역경제 발전형 축제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와 주변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지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비교적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 또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행사 강화를 통해 출향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차별화된 경쟁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1년 9일 동안 개최되었던 제13회 봉화은어축제에는 89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2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2010년 "경상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유망축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가볼 만한 축제에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어떤 축제라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으며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 단지 행사장을 찾아 온 이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있을 뿐이다.

'봉화은어축제' 또한 집중호우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비해 주요 행사장을 단계형으로 마련하여 안정성을 갖추고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향후 봉화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축제는 특정시기에 일정기간 열릴 뿐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인 환류를 거친다면 '봉화은어축제'는 지금 가볼 만한 축제에서 1년 후에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근

경북 봉화군 문화관광과
kdg11140@korea.kr